

**Studying an Imperfect History and Learning as Christians
from a Past Full of Both Faithfulness and Flaws:
A Case Study from the U.S. Protestant Mission in Korea**
**불완전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신실함과 결점들로 가득한 과거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배운 것들: 한국에서의 미국 개신교 선교 사례 연구**

William Yoo, Associate Professor of American Religious and Cultural History
윌리엄 유, 부교수, 미국 종교사와 문화사

In 1884 and 1885, the first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aries, Horace Newton Allen and Horace Underwood, arrived in Korea. Despite their uncertainties about Korea, the missionaries were eager to begin their work. For centuries, Korea largely remained secluded from the rest of the world. Western merchants and missionaries had entered other Asian countries from the sixteenth century, but Korea maintained an isolationist policy until signing its first foreign treaty with Japan in 1876 and Western nations in the 1880s. Some of the earliest Western reports called Korea “the hermit nation” and “the forbidden land.” In 1885, George William Knox, a Presbyterian missionary in Japan who had lobbied his denomination to send missionaries to Korea, conceded that he thought Korea was not nearly as attractive a mission field as Japan, because Korea was “not a great empire with a great history,” but a rather “weak people” in comparison to her stronger neighbors, Japan and China.

1884 년과 1885 년에 최초의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인 호레이스 뉴턴 알렌과 호레이스 언더우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은 대체로 세상 다른 나라들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16 세기부터 서양 상인들과 선교사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진출해 있었지만, 한국은 1876 년에 일본과 처음으로 수교를 체결하고 그리고 1880 년대에 서양 국가들과 수교를 체결하기까지 고립주의(쇄국)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최초로 한국을 언급한 서양 보고서들 중 일부는 한국을 “은둔국(隱遁國)” 혹은 “금단(禁斷)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1885 년에 일본에서 사역하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조지 윌리엄 닉스는 자신의 교단에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로비를 벌이면서 자신의 생각에도 한국은 일본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선교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한국은 보다 더 강한 이웃 국가들인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위대한 역사를 가진 위대한 제국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American missionaries to enter their nation but prohibited direct evangelism. Thus, Underwood and other missionaries engaged chiefly in medical and educational work during their first several years. But Underwood, as a pastor, was eager to pursue evangelism and preaching. He believed God did not call them to Korea to primarily work in schools and hospitals, but rather to evangelize a nation through their

preaching. Underwood began to plan trips to distribute Bible pamphlets and preach across various regions of the country. Horace Newton Allen was a doctor and advocated a cautious approach to evangelistic work. Allen wished to build trust between the U.S. Presbyterian miss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Moreover, as a physician, Allen wanted to establish a modern hospital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government. Allen also believed that the potential for mission work was great in Korea, but he prioritized modern education and public health as the most effective approaches. He rebuffed other missionaries who sought to evangelize Korean patients receiving medical care because Allen did not want his patients, in their vulnerable conditions, to feel pressured to convert to Christianity.

한국 정부는 미국 선교사들이 자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직접적인 복음전도는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다른 선교사들은 한국에 도착하여 처음 몇 년 동안 주로 의료 사역과 교육 사역에 관여(關與,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목사였던 언더우드는 복음전도와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주로 학교와 병원에서 일하라고 한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설교를 통하여 한 나라를 복음화하려고 부르셨다고 믿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전국 여러 지역에 성경 소책자들을 배포하고 설교를 하기 위한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해] 의사였던 호레이스 뉴턴 알렌은 복음전도 사역에 대한 신중한 접근법을 옹호했습니다. 알렌은 한국 정부와 미국장로교 선교양자 사이의 신뢰를 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알렌은 의사로서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근대적인 병원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알렌은 또한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의 가능성이 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적] 접근법으로 근대적 교육과 공중 보건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는 한국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꾀했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기를 거절했는데 이는 그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압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isagreement over social justice and evangelism was not unique to the Korean mission field. After inspecting overseas mission work in 1854 and 1855, Rufus Anderson, a leader of 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shut down English-language mission schools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India and Sri Lanka, because they detracted from evangelistic work. Angry missionaries operating these schools protested Anderson's decision. In Korea, Allen and Underwood came into conflict over their differing approaches. Each threatened to resign from the Presbyterian mission because of the other. Underwood thought Allen was too concerned about his hospital and his profile as a medical doctor. Allen thought Underwood was turning a blind eye to the real needs of the Korean people. As missionaries, Allen believed they were bearing Christian witness in Korea by providing educational and medical facilities. He also compared the many hours he spent in hospital administration and patient care to the other missionaries' schedules, which Allen thought was too easy with ample time for language training, religious study, and leisure.

사회적 정의와 복음 전도에 대한 의견 차이는 한국의 선교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특색은 아니었습니다. 미국해외선교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역주: 1810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선교

단체)의 지도자였던 루퍼스 앤더슨은, 1854년과 1855년에 해외 선교 사역에 대해 심도 깊게 조사한 후, 복음 전도 사역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이유로 인도와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들에 있던 영어권 미션 스쿨들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문을 닫은 학교들을 운영하던 이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화가 나서 앤더슨의 결정에 저항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알렌과 언더우드도 그들의 다른 [선교적] 접근법들로 인해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상대방 때문에 장로교 선교를 그만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언더우드는 알렌이 지나치게 자신의 병원과 의사로서의 자기 프로필(약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렌은 언더우드가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못 본 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렌이 믿기에는 선교사들은 교육 기관들과 의료 기관들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 기독교적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병원 업무와 환자들을 돌보는 데 보낸 많은 시간들과 다른 선교사들의 일정들을 비교하고서 언어 훈련과 종교적 공부 그리고 여가 시간이 충분한 선교사들의 업무가 (자신의 업무에 비해) 매우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n 1890, the Korean government eased its restrictions on evangelism. Despite their newfound freedoms, the missionaries did not have great initial success in evangelism. Samuel Austin Moffett, a Presbyterian missionary who arrived in Korea in 1890, discovered in his first months in Seoul that their mission still struggled to sustain their educational, evangelistic, and medical endeavors. Moffett also found that the missionaries disagreed about whether to prioritize social or religious initiatives. After ten months in Seoul, Moffett asked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for permission to establish a new mission station in Pyongyang. He wished to leave the contentious missionary community in Seoul and begin afresh in northern Korea, without the arguments about strategy. Unlike Allen, Moffett prioritized evangelism over education and medicine. Some of Moffett's missionary colleagues agreed with him and they almost refused a gift of \$10,000 to establish a medical school in 1900.

1890년에 한국 정부는 복음 전도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들의 새롭게 찾은 자유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890년에 한국에 도착한 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오스틴 마펏은 서울에서 처음 몇 달을 보내며 선교사들이 그들의 교육적, 복음전도적, 그리고 의료적 선교 활동들을 계속 유지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마펏은 또한 선교사들이 사회적 선교 계획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선교 계획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에서 10달을 보낸 후 마펏은 미국장로교 해외선교본부에 평양에 새로운 선교 기지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의 공동체들을 떠나서 선교 전략에 대한 논쟁 없이 한국 북부 지방에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펏은, 알렌과는 달리, 교육과 의학보다는 복음전도에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마펏의 동료 선교사들 몇몇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였는데 그들은 1900년에 의과 대학을 세우라고 보내준 \$10,000의 기부금/헌금을 거의 거절할 뻔했을 정도로 복음전도를 우선시 하였습니다.

In 1869, John Nevius, an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ary in China, had drawn the blueprint for a purely spiritual approach to mission work and formulated an evangelistic strategy based on Henry Venn and Rufus Anderson's principles of self-supporting, self-governing, and self-propagating indigenous churches. Nevius stressed that the primary missionary task was to evangelize and "not to teach mechanics or civil engineering, or foreign languages or sciences; not to Christianize heathen nations by civilizing them, as some plainly assert; but to Christianize them, and leave them to develop their own form of civilization." Nevius also criticized the use of foreign funds to plant indigenous churches and instead endorsed the principle of self-support as the means to authentic growth with ministries that did not entice local persons to join for the sake of closer access to the missionaries' material resources and global connections.

1869년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 존 네비우스는 선교 사업에 순전히 영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렸고 헨리 벤과 루퍼스 앤더슨이 제기한 자립(自立), 자치(自治), 자전(自傳)이라는 토착 교회의 (삼자) 원칙에 기초한 복음 전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네비우스는 선교의 주된 과제는 복음화이며 "역학이나 토목 공학 혹은 외국어나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교도 국가들을 문명국으로 만들어서 기독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기독교화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문명의 형태를 발전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토착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외국에서 온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 대신에 선교사들의 물질적 자원과 전세계적 관계성에 더 가까이 접근할 목적으로 현지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유도하지 않는 사역들로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방안으로서의 자립의 원칙을 승인했습니다.

Underwood and his missionary colleagues in Korea adopted Nevius's methods. They settled on four guiding principles: First, Korean Protestants were to "abide in the calling wherein he was found," meaning that no convert was to be removed from their neighborhood or paid by missionaries. Each convert was to remain at home to evangelize friends and family members without missionary finances. Second, missionaries should develop indigenous churches with simple operations that Korean Protestants could readily understand and manage. Third, Korean churches could appoint and pay evangelists among their most qualified members as long as the pay came strictly from Korean giving. Fourth, missionaries must let Korean Protestants erect church buildings in accordance with Korean architectural styles and financial resources

언더우드와 한국에서 활동한 그의 동료 선교사들은 네비우스의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4가지 지도 원칙들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한국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곳에서 부름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이웃들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선교사들의 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개종자들은 선교사들의 재정 지원 없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집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선교사들은 한국 개신교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순한 방식으로 토착 교회들을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국 교회들은 순전히 한국인들의 헌금으로만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지불할 경우에만 전도자들을 임명하고 사례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선교사들은 한국 개신교도들이 한국의 건축 양식과 재정 자원에 따라서 교회의 건물들을 세우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 their educational work, missionaries debated whether or not to teach English in their schools. In 1898, one missionary, Daniel L. Gifford wrote that Presbyterian mission schools had decided to teach strictly in Chinese and Korean. Missionaries observed that some Koreans were most interested in the mission schools to acquire Western education and learn English. Although some American teachers wished to teach English to Koreans, others feared that English classes would detract from religious education. In *The Gospel in All Lands*, a magazine about world missions for American readers, one report in 1888 from the Methodist missionaries in Korea indicated that they were not training students in their schools to become more like Americans. The missionaries were not cultivating the Koreans to take “after our foreign ways of living, dress, and surroundings,” but instead the missionary educators took “pleasure in making Koreans better Koreans only.” They emphatically declared, “We want Korea to be proud of Korean things, and more, that it is a perfect Korea through Christ and His teachings.”

교육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미션 스쿨에서 영어를 가르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였습니다. 1898년에 다니엘 기포드라는 선교사는 장로교 미션 스쿨은 철저히 중국어와 한국어로만 가르치기로 결정했다고 썼습니다. 선교사들은 일부의 한국인들이 서구 교육을 받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미션 스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한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었지만 다른 교사들은 영어 수업이 종교 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릴까봐 두려워 했습니다. 1888년에 미국의 독자들을 위해 세계 선교에 대한 글을 소개하는 잡지인 <모든 땅에서의 복음>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보고서를 하나 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미국인처럼 되도록 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국적 생활 방식과 의복과 환경”을 채용하도록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교사들은 “오직 한국인을 더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한국적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완전한 한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But many Korean students at mission schools continued to desire to learn English alongside religious subjects. In 1903, missionary educators at Pai Chai Academy, a Methodist school founded by Henry G. Appenzeller, removed English courses from the curriculum to accentuate their commitment to Christianity. One missionary teacher noted that the school's restriction appeared “absurd to the man who stands outside and looks on,” but he maintained that “many of the missionaries have the feeling that instruction in English is not only a waste of time but positively injurious to the Koreans.” After implementing their new policy, missionaries reported a decline in the number of students. They were also surprised that some students

organized a strike against the school for changing the curriculum. But the school's principal chafed at student demands and insisted that the school was for religious education.

그러나 미션 스쿨에 다니던 많은 한국인 학생들은 계속해서 종교 과목들과 함께 영어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1903년에 헨리 아펜젤러가 세운 감리교 학교인 배재 학당에서 가르치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기독교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 커리큘럼에서 영어 과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들 중 한 교사는 학교의 이러한 제한이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했지만, 그는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확실히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후, 선교사들은 학생들의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일부 학생들이 이러한 교과 과정의 변경에 대해 학교의 입장에 반대하는 파업 곧 수업 거부를 조직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교장은 학생들의 요구에 분개하며 그 학교는 종교 교육을 위한 학교라고 주장했습니다.

In 1905, the United States closed the embassy in Korea in recognition of the Japanese Protectorate, which was established after Japan's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Western nation to acknowledge both Korea's independence in 1882 and Japanese rule in 1905. U.S.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supported Japan's takeover and believed that Japanese conquest would curb Russian power in Asia and benefit Koreans with social reforms. U.S. magazines also contrasted the modernizing Japanese to primitive Koreans. In 1905, an American correspondent in East Asia compared the two nations: "The first thing that strikes a traveler in going from Japan to Korea is the extraordinary contrast between the cleanness, good order, industry, and general prosperity of one country, and the filthiness, demoralization, laziness, and general rack and ruin of the other." In 1906, after the Japanese began operating schools in Korea, one Methodist missionary, William B. Scranton, confessed that the elimination of English in mission schools was a mistake. Scranton acknowledged that Korean students needed to learn English because they lacked adequate textbooks in Korean and learning English in mission schools would promote further employment opportunities,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spiritual flourishing.

1905년에 미국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세워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국 지위(Protectorate)를 인정하면서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의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은 1882년에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1905년에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한 최초의 서구 국가입니다. 띠어도어 로즈벨트(혹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지지했는데 그는 일본의 정복이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힘을 억제하고 사회 제도의 개혁으로 한국을 이롭게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미국의 잡지들도 역시 근대화된 일본인들과 원시적인 한국인들을 비교하였습니다. 1905년에 어느 미국인이 두 나라를 비교하는 글을 (어느 잡지에 기고하는) 편지에 썼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면서 첫 번째로 받게 되는 깊은 인상은 두 나라 사이의 보기 드문 대조인데, 한 나라는 청결하고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며 산업이 발전하고 일반적으로 번영한 반면, 다른 나라는 더럽고 풍기가 문란하며 게으르고 일반적으로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1906년 곧 일본이 한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후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감리교 선교사는 미션 스쿨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를 그만둔 것은 실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크랜턴은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왜냐하면 (첫째) 한국어로 쓰여진 적절한 교과서가 부족했고 (둘째) 미션 스쿨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학생들의 고용기회, 지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번영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American missionaries held an ambivalent view of Korea. Their accounts initially resembled reports by American diplomats, visitors, and journalists: Korea was underdeveloped, impoverished, and caught in an intricate web of geopolitical struggle in East Asia, with Japan, China, and Russia all seeking hegemony over Korea until Japan formally annexed Korea as its colony in 1910. However, as the missionaries experienced extraordinary growth in their ministry among Koreans, they believed the work they were doing there had global ramifications. Missionaries called Korea “the Palestine of the Far East.” In the biblical era, God’s message emerged from Palestine, a weak nation surrounded by larger ones. Similarly, Korea, though small and feeble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held great promise as a nation where American missionaries could preach the gospel, heal the sick, and potentially transform an entire society.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에 대해 양면적인/애매한 관점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기록들은 처음에는 미국 외교관들과 방문객들과 기자들의 보고들과 흡사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고 가난하며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동아시아의 지정학 투쟁의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었는데 1910 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공식적으로 합병하기까지 이 세 나라들은 한국의 지배권을 잡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사역이 보기 드물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함에 따라 자신들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을 “극동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던 약한 나라인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등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비록 작고 약하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전 사회를 변혁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서 (많은 사람들의)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But missionaries worried that Korean churches would become hubs of Korean nationalism. They did not fail to notice widespread Korean resistance to Japanese rule. One Presbyterian missionary, William Newton Blair, observed: “In a day, what centuries of misrule of the part of her own rulers had failed to do, Japanese occupancy accomplished: patriotism was born in Korea. A wave of intense national feeling swept over the land.” Blair and other missionaries, however, demanded a policy of political non-interference. Although Blair insisted that he and his missionary colleagues desired for Korean pastors and lay leaders to have autonomy in directing their own congregations, Blair still wanted the churches to preserve spiritual purity and dissuade Koreans from joining churches for political purposes. Blair wanted Korean Christians to avoid the mistakes of the fourth century, when Constantine converted to Christianity and made it the state religion of the Roman Empire. Blair assessed that if Korean Presbyterian congregations “departed even a little from the strict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politics,” one potential outcome was the following: “We might have again witnessed the cross of Constantine leading a great army. I believe Korea, like the Roman Empire, would have adopted Christianity in a day, and I believe, too, we would have had another Roman Church.”

그러나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주의의 중심이 될까봐 우려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일본의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광범한 저항을 주목하는 데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뉴턴 블레어라는 장로교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의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루만에 일본의 강점(強占, 강제 점령)이 해냈다: 애국심이 한국에 태어난 것이다. 강력한 민족 감정의 물결이 그 땅을 휩쓸었다.” 그러나 블레어와 다른 선교사들은 정치적 불간섭주의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블레어는, 비록 자신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은 한국인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들 자신의 교회들을 자율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교회가 영적인 순수성을 보존하고 한국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만류하기를 여전히 원했습니다. 블레어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던 4 세기의 실수들을 피하길 원했습니다. 블레어는 만약 한국 장로교회들이 “정치 불간섭주의의 엄격한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고 하면 발생할 잠재적 결과 하나는 다음과 같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큰 군대를 이끄는 콘스탄틴 황제의 십자가를 다시 목격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도 로마 제국처럼 하루 아침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아울러 또 다른 로마 교회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었다고 믿습니다.”

Arthur Judson Brown was a leading organizer of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efforts throughout the worl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1919, Brown published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which he attributed the greater success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 compared to China and Japan to racial characteristics. Brown maintained, “Korean temperament is quite distinct from that of China and Japan. Less stolid and materialistic than the Chinese, less alert and martial than the Japanese, the Korean is more susceptible and trustful than either.” In Brown’s estimation, these weaker racial characteristics of Koreans made their country a more fertile mission field than Japan because Korean converts did not deviate from missionary instruction: “The Japanese Christian subjects the teachings of the missionaries to his own independent scrutiny. The Korean Christian takes them without question. The former is a theological progressive; the latter a theological conservative.” Brown also compared Koreans to African Americans. Just as many white American Protestants judged African Americans as spiritually gifted with strong talents for prayer, preaching, and singing but lacking in practical wisdom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Brown affirmed Korean Christians for their special gifts in worship but noted his belief that Koreans also required foreign guidance to modernize their country.

아서 저드슨 브라운은 20세기 초에 전세계적으로 미국 장로교 선교 활동을 주도적으로 조직했던 사람입니다. 1919년에 브라운은 <극동의 지배: 한국의 변혁과 일본의 패권의 부상(浮上)에 대한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한국에서 개신교 선교가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을 한국인의 인종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국인의 기질은 중국인의 기질과 일본인의 기질과는 두드러지게 다르다. 중국인보다 덜 둔감하고 물질주의적이며 일본인보다 경계심이 덜하고 호전적인 한국인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더 민감하고 더 잘 믿는다.” 그는 한국인의 이러한 약한 인종적 특성이 한국을 일본보다 더 비옥한 선교지로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그 이유를 한국인 개종자들이 선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에서 찾았습니다. “일본인 기독교인은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독자적으로 철저히 검토한다. 한국인 기독교인은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일본인 기독교인은 신학적으로 진보주의자이다. 한국인 기독교인은 신학적으로 보수주의자이다.” 그는 또한 한국인들을 미국 흑인들(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백인 미국 개신교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기도, 설교,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로 부여 받았지만 교육과 직업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그는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지도를 필요로 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In 1905, Scranton wrote his mission board in New York. He told his supervisors that the Japanese wantonly destroyed Korean property and threatened Koreans with physical harm: “As foreigners living in Korea...we are all nearly pro-Japanese to the extent of wishing well for Japan in Korea, if she will do well by Korea. We are Korean sympathizers first and look at Korea from the local standpoint.” In 1906, another Methodist missionary, Mattie Wilcox Noble, complained in her diary of how Japanese soldiers seized homes and the most valuable tracts of land for military purposes without fairly compensating the owners. Japanese soldiers also tried to confiscate mission property until the missionaries threatened to go to higher Japanese imperial officers. Noble observed that “the poor Koreans suffer thus all the time” with no one to defend their cause.

1905년에 스크랜턴은 뉴욕에 있는 자신의 선교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재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한국인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며 위협하고 있다고 자신의 상사(上司)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로서... 우리는 거의 모두 일본이 한국에서 잘 할 수 있다면 일본이 한국에서 잘 되기를 바랄 정도로 친일파이다. 우리는 먼저 친한파이며 한국을 현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1906년에 다른 감리교 선교사인 매티 윌콕스 노블은 일본 군인들이 한국인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들의 가옥과 가장 귀중한 토지를 탈취한 것에 대해 고발하는 글을 자신의 일기에 썼습니다. 일본 군인들은 또한 선교사들이 일본 제국의 고위 장교들에게 찾아가겠다고 그들을 위협할 때까지 선교사들의 재산을 몰수하려 했습니다. 노블은 자신들을 대변하며 옹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난한 한국인들은 그러므로 항상 고통을 받는다”고 기록했습니다.

Yet one area of tension for the missionaries concerned politics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hile sympathetic to Korea’s geopolitical plight, American missionaries insisted that Korean Christians focus on religious expansion instead of political

resistance. Whereas some Korean Christians were inspired by the liberating message of Christ as Deliverer to fight against their imperial rulers, American missionaries believed the most faithful approach was to imitate the example of Christ's earthly ministry, in which he traveled throughout the Roman Empire healing and teaching people without interfering in imperial politics.

그러나 정치와 한국의 독립운동은 선교사들의 긴장을 유발한 한 가지 분야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곤경에는 동정적이었지만,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저항 대신 종교적 확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싸우시는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해방의 메시지에 의해 영감을 받은 반면, 미국 선교사들은 가장 신실한 선교적 접근법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본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하고 다니시며 로마 제국의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The massive Korean uprisings during the March First Movement in 1919 surprised most of the missionaries, who had underestimated the intensity of Korean resistance, especially among their female students. As Koreans gathered in Seoul to protest, the teachers at one mission school for young women stopped students from participating. In another mission school, one hundred female students defied their American teachers, and marched toward the city gates, with hymn books in one hand and Bibles in the other, to pledge solidarity with their compatriots. Although Christians comprised little more than 1 percent of the Korean population in 1919, 65 percent of the Korean women arrested during the uprisings were Christian. In 1928, Helen Kim (Kim Whalan) gave an address at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meeting in Jerusalem. She advocated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stating how the gospel had empowered Korean women to be bold leaders "in all walks of life, not only in domestic life, but also in the industrial, commercial, political, and international life of humanity."

1919년 삼일운동 기간 중에 일어난 한국인들의 봉기(蜂起, 벌 떼처럼 떼 지어 세차게 일어남)들은 한국인들의, 특별히 여학생들의, 저항의 강도(強度)를 과소평가했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서울에 모여 시위를 벌일 때, 어느 젊은 여성들을 위한 미션 스쿨의 선생들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른 미션 스쿨에서는 100명의 여학생들이 그들의 미국 선생들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성문들까지 행진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동포와의 연대를 다짐하기 위해 한 손에는 찬송가를 다른 손에는 성경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비록 기독교인들은 1919년에 한국 인구의 1%를 조금 넘었지만, 이 봉기 기간 동안 체포된 한국 여성들 중 65%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928년에 김활란(Helen Kim)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선교협의회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복음이 어떻게 한국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산업적이고 상업적이며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곧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었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But the missionaries remained quiet about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ary, John Fairman Preston, wrote his father a letter on March 17, 1919, and confided that the missionaries were instructed to refrain from speaking on political matters. Preston told his father that Koreans felt “discriminated against and treated as half civilized” and that most Koreans also openly resented the Japanese. But Preston said that he was “very careful to express no opinions on political matters and carefully avoid mixing up in politics.” But even a public announcement by Preston would not have supported Korean liberation. Preston also wrote, “The cry for independence is, of course, ill-timed and impracticable. Like a child crying for a wasp, one wonders what the Koreans would do with it if they had it!”

그러나 선교사들은 한국의 독립 운동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존 페어맨 프레스톤은 1919년 3월 17일에 그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는 이 편지에서 선교사들은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삼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반문명인(half-civilized)으로 취급받는다”고 느끼고 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또한 공개적으로 일본인을 원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정치에 끼어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설령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손치더라도 그의 발언은 한국의 해방을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달라고 외치는 것은, 물론, 시기상조(時機尙早)이고 실현 가능(實現可能)하지 않다. 그것은 아이가 말벌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데, 한국인들이 독립을 한다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

Preston was not the only missionary skeptical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rown also publicly stated that many missionaries doubted that Koreans could govern their national affairs without Japanese control. Herbert Welch, a leading organizer for American Methodist world missions, reported that “some of the missionaries who are long-standing and devoted friends of Korea are not convinced that independence would be a genuine blessing at this time.” Brown cautioned relatives and friends of Presbyterian missionaries to learn more about Korea before condemning the Japanese, noting that two Japanese groups, one civil and the other military, disagreed over imperial policy. The civil party felt outrage at the violence, but the military wanted to deter rebellion with swift and overwhelming force. Brown felt sympathetic toward Koreans, but he saw their protests as misguided and unwise.

프레스턴만이 한국인들의 독립 운동에 대해 회의적인 선교사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라운도 역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은 일본의 통제 없이는 국정을 다스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감리교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조직했던 허버트 웰치는 “한국에서 오래 활동해 왔고 한국에 헌신적인 친구들인 선교사들 중 일부는 한국의 독립이 지금 이 때에 한국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브라운은 장로교 선교사들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일본인들을 정죄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라고 경고했는데 그는 일본인들의 두 그룹 곧 시민들과 군부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분노했지만 일본 군부는 신속하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한국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브라운은 한국인들에게 동정심을 느꼈지만 그들의 시위를 판단을 잘못 한 것이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보았습니다.

Korean Christian femal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joined in their nation's push for liberation. At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SVMFM) convention in Iowa in 1920, one Korean student lobbied for American support by calling for Americans to more directly help the country resist Japan. She praised Christ for inspiring young women like her to leave the shelter of their homes and march for justice on the streets. As Korean students continued to address the SVMFM convention each year, its delegates began to take notice. African American theologian Howard Thurman recalled an indelible moment from when he attended the SVMFM convention as a seminary student in his book, *Jesus and the Disinherited*. A young Korean woman defied the organizer's instructions to speak on her impression of American education and instead delivered an impassioned appeal for Korean liberation, concluding her speech with this comparison: "If you see a little American boy and you ask him what he wants, he says, 'I want a penny to put in my bank or to buy a whistle or a piece of candy.' But if you see a little Korean boy and you ask him what he wants, he says, 'I want freedom from Japan.'"

미국에 있던 한국 기독교인 여성 학생들은 자국(自國)의 해방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1920년에 아이오와 주에서 열린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자원운동(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SVMFM) 대회에서 한 한국 여학생은 미국인들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저항하는 것을 돕기를 요청함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위한 로비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같은 젊은 여성들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안전한 자신들의 집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정의를 위한 행진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 사의(謝意, 감사하게 여기는 뜻)를 표했습니다. 해마다 SVMFM 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한국의 독립 운동을] 주목(注目)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흑인 신학자인 하워드 터먼은 그가 신학생일 때 참석한 SVMFM 대회에서 그가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그의 책 *예수와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들* (1949년)에서 회고하였습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 미국의 교육에 대한 그녀의 인상에 대해 말하라는 주최 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그 대신 한국의 독립을 위해 열정적인 간청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비교로 그녀의 말을 마쳤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어린 미국인 소년을 보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소년은 '나는 내 저금통에 넣을 수 있는 혹은 호루라기나 사탕 한 알을 살 수 있는 동전 한 개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느 한국인 소년을 보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소년은 '나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Thurman compared Koreans to the outcast Jewish minority in the Roman Empire and Afric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arguing that the quintessential question of the disinherited in every age was to discern the right attitude toward the rulers who controlled their lives. One lesson from history is that Christian theology must be simultaneously interested in pursuing worship that honors God in the church and seeking liberation for persons facing oppression in the world. Since every person is a beloved child of God, created in God's image, Christians must engage what is happening in their societies to ensure that every human has freedom, dignity, and fair access to education, employment, food, clean water, worship, and other necessities of life.

떠만은 한국인들을 로마 제국에서 살면서 따돌림을 받던 유대인 소수자들과 미국에서 살면서 따돌림을 받던 흑인들과 비교하면서 모든 시대에서 상속권을 박탈 당한 사람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통치자들에 대해 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가 주는 한 가지 교훈은 기독교 신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과 세상 안에서 억압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해방을 추구하는 것에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간이 자유와 존엄과 교육에의 공정한 기회와 고용과 음식과 깨끗한 물과 예배와 기타 생활 필수품을 가지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As a church historian and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 I am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study and learn together with you. One challenging component of studying history is the need to blend what one Reformed theologian from the United States, John Leith, names as gratitude and critical judgment. Leith writes, "The church has never found it easy to balance gratitude with critical judgment. Gratitude easily becomes nostalgia for the past, and critical judgment slips into contempt." I am convinced that studying history together in a seminary classroom is both inspiring and heartbreaking. It is a joy to explore how some Christians interpreted the Bible to lead faithful congregations in proclaiming good news to the poor and enacting liberation for the oppressed. But we also must confront the deep flaws of other Christians and learn from their mistakes. One metaphor for my teaching is a long and hard journey. My students and I are traveling through the past together. Studying history must be an honest encounter with the best and the worst of Christianity. Some of the pathways we trod are exhilarating whereas other parts of the journey require courage and determination.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2 세로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배울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역사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중 하나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리쓰가 감사와 비판적 판단이라고 부른 두 가지를 잘 섞는 것입니다. 리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감사와 비판적 판단 사이의 균형을 잡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감사는 쉽게 과거에 대한 향수가 되고 비판적 판단은 슬그머니 과거에 대한 경멸이 된다." 저는 신학교 교실에서 우리가 함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영감을 주는 일이면서 동시에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려는 회중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른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결점들을 직시하고 그들의 실수들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신학교에서의 제 가르침은 비유로 말하면 길고 힘든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학생들과 저는 과거를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과 최악의 것 둘 다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중 일부는 아주 신나는 것인 반면 우리의 여행의 다른 부분은 용기와 결의(決意,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